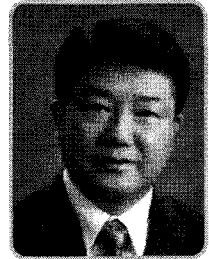


한국 사료산업의 Paradigm Shift



장 원 철

(주)한국축산의회망 서울사료,
(주)이지바이오 부회장
본회 부회장, 원료구매위원장

지난 겨울의 잔혹한 축산질병(FMD, HPAI)은 과거 50년간 착실하게 성장해 온 한국 축산업과 사료산업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뒤 흔들고 짓밟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일반 통념과 관습을 짚은 방심의 순간에 모두 깨버리고, 그동안 말로만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속수무책으로 축산 관련 산업까지 철저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축산질병은 쓰나미처럼 몰려와 수많은 가축이 처참하게 묻히고 망연자실하는 농장을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료산업의 고객인 축산농장의 파괴는 결국 사료사업의 붕괴로 연결되어 사업적 큰 손실을 입고도, 차마 피해 상황을 어느 누구 앞에서 제대로 하소연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사태가 수습된 마당에 우리 사료업계는 다시 고객 농장에게 새로운 희망과 재건을 이야기하여야 하나, 그 방법도 궁색하고 뚜렷한 대안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리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한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런 사업적 위기 속에서 어떤 변화를 예견하면서 새로운 사료산업이 갈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료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차마 이런 일은 없어야지 하는 부분도 이제 내놓고 들어내서 굶은 상처를 치료하듯 새로운 사업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준비 중인 축산업 선진화 대책은 결국 환경친화적 축산, 허가제의 강화 등으로 축산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사료산업의 역할과 방향도 궁극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 동안 사료산업의 역할은?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영양공급의 수요 증가로 한국 축산업은 함께 성장했지만, 결국 집약적 시설에 과밀 사육을하다 보니 환경과 질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축산업은 지난 기간에 사료업체가 주도적으로 농장의 규모확대와 축산기술의 보급에 중대한 역할을 한 공로는 마땅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배합사료의 품질 개선, 다양하고 경제적인 사료원료의 개발, 선진 사양기술 지도와 과학적 사육 프로그램의 보급, 철저한 방역 및 소독 프로그램 서비스, 유통 및 마케팅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한 사육규모의 확대 등 한국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연말에 재앙적 질병발생으로 그 동안의 사료산업의 공로는 한 순간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료업체에서는 고객농장에 어느 질병이와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장 해주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망연자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객이 처참히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료업체의 현재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이런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도 이번처럼 사료업체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지켜보는 일을 반복해

야 합니까? 물론 사료업체가 국가적 질병 예방에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사료사업의 역할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축산농장의 재건과 희망을 이야기 하지만, 수도권(경기, 충청 및 강원 일부)에서는 환경을 내세운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새로운 사업자금의 마련, 정책 방향 등 많은 장애와 벽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규모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새로운 사업적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사료사업의 새로운 역할은?

축산업에서 사료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나 되고, 농장의 과학적 축산에도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이런 재앙적 질병에서는 무기력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넓은 의미의 축산은 종축(종계, 종돈, 종모우 등)의 생산 및 보급, 도축 및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가공, 그리고 유통, 축산물 수출·입까지 포괄합니다.

또한 축산 관련산업으로까지 넓혀보면, 축산 시설 및 설비, 방역과 수의, 동물약품과 백신, 분뇨처리와 축분 비료, 운송업 등등 많은 분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사업의 주도권을 통합하는 주체(Integrator)에 따라서, 축산물 유통과 사료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또 통합의 주체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었는가? 아니면 수평적 형태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축산업을 살펴보면 통합 주체(Integrator)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 축산물 생산업자가 유통을 토대로 사료사업까지 포괄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료는 축산업 전반의 통합의 사업요소 중에 한 분야인 원재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배합 사료를 가지고 한국 시장처럼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입혀서, 마케팅과 영업을 전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배합사료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용도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게다가 사료의 품질까지 3~4가지로 다양화되어 심지어 농장 별 맞춤사료 형태로 공급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배합사료가 농장의 축산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단지 회사별로 경쟁적 영업 수단은 아니었던가? 이런 점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배합사료의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료생산만 담당하는 “사료생산 주식회사”를 여러 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사료의 영업과 서비스도 대리점의 기능으로 전환하여 영업사원의 비용 등 판매 유통비용을 최소화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축산은 농가에서 보유한 잉여곡물 또는 농업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가축사육에 사용하기 위한 농축사료 형태와 통합주체에 의해서 대량생산을 위해 원재료로 공급되는 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축산 발전단계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축산 재앙 이후에 한국 축산업의 선진화에 사료업계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사료업계는 과거와 같은 사업방식에서 분명 새로운 역할과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 한국사료 산업의 Paradigm Shift

지난 50년간의 한국의 사료사업은 경쟁업체와 비슷한 원료의 공동사용, 가격의 등락, 환율의 변화, 각 회사별 원료의 재고 수준, 금융지원에 의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참여업체가 같은 사업환경에서 우열을 가름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한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결과, 한국축산 농장의 규모화, 과학 축산으로 이끈 공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축산의 규모는 점차 수입축산물에 의해서 잠식 당할 수 밖에 없고, 환경 논리에 의하여 점차 사양화 되어 자립 기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누가 한국 축산을 수입축산물의 지배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방법은 오직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축산물은 조금 더 낮은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하는데 한국의 사료사업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생산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 보다 생산비에서 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과 위생에서 식품 안전성이 보장되는 차별화된(Premium)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한다면 틀림없이 국산 축산물의 새로운 위치는 확고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료업체는 좋은 품질의 사료(원 재료)를 경제적 가격으로 농장에 공급하여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료는 축산물생산의 주요한 원재료로 인식하고 원가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본업도 배합사료 사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본격적 축산업의 본류(생산에서 유통까지)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료산업은 축산업 전체 관련사업과의 신속한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축산업 전체의 한 분야인 원자재 공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한국 축산업의 본류인 종축 사업, 또는 직접 사육에 참여, 나아가서 통합의 주체로 역할, 유통 및 가공, 또는 관련 축산업까지 확장 진출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축산물의 수급에 참여하여 직접 우수한 축산물의 수출입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업영역의 확장은 한국축산업을 보호하려는 사료사업자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축산 비전문가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먹거리로써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사료업체에서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논리와, 여차피 국내 축산물의 일부를 수입축산

물에 할애해야 된다면 그 주체도 한국의 축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료업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입니다.

이는 현재처럼 대형 유통업자(Packer)에 의해서 가격 논리만 내세우며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은, 국내 축산업을 급속도로 황폐화시키는 현 상황을 막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중재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역할에 도전을 한 사료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회사의 힘으로는 미약하여 도중에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각 사료회사의 관심 있는 분야, 축종을 표명하여 축산물 수급에 관련된 사업 합작(Consortium)을 만들거나, 공동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축산업 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사업권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료사업 방향을 위한 Paradigm Shift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현재의 아픈 상처를 신속하게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는 것이 빠른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